



미국 'BBBC' 아시아 첫 방문 관악제 막 연다

〈브라스 밴드 오브 베를 크리크〉

도·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이달 7~15일 31회 관악제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 등
21회 관악·타악콩쿠르도

세계 정상급 관악 연주 단체인 미국의 '브라스 밴드 오브 베를 크리크(BBBC)'가 아시아 첫 무대로 제주국제관악제의 막을 연다.

4일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31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과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가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제주아트센터, 제주도 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 등에서 펼쳐진다. 참가 규모는 콩쿠르 신청 인원을 포함 미국, 캐나다, 대만 등 국내외 28개국 3900여 명이다.

개막 공연은 8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이 무대에 오르는 BBBC는 1989년 창단 이래 정상급 연주자를 꾸준히 영입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실력과 금관·타악기 솔리스트, 주요 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개막 공연에 출연하는 미국의 '브라스 밴드 오브 베를 크리크(BBBC)'.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 제공

이날 개막 연주회에선 BBBC만이 아니라 TV 예능 '팬텀싱어' 출신 테너 서영택, 소리꾼 김수인의 협연 무대도 만날 수 있다. BBBC는 11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도 특별 공연을 갖는다.

관악제 기간에는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관악인들의 예술성을 조명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아시아 관악 페스티벌'이 열린다. 11일과 13일 해변공연장.

마에스트로 콘서트는 12~13일 문예회관에서 펼쳐진다. 세계적 타악단체 '상하이 퍼커션 앙상블' 등이 참여한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세계유산 투

어 프로그램으로 만장굴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관악제의 상징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문예회관에서 탐동 광장까지 시가 퍼레이드를 진행한 뒤 연합관악대, 안복자 명창,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이 출연하는 광복 경축음악회를 꾸민다.

해변공연장과 서귀포 천지연폭포 야외 공연장에서는 시원한 금빛 선율이 어우러지는 야간 관악 공연(9~14일)이 잇따른다. 9팀(654명)이 겨루는 13세 이하 유소년 관악단 경연대회(7일 제주학생문화원), 23팀(1275명)이 출연하는 청소년 관악의 날(8~9일 제주학생문화원)도

있다.

신진 관악인을 발굴하는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 콩쿠르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대 아라뮤즈홀, 비인 공연장, 함덕고 백파뮤직홀에서 1·2차 경연이 이뤄진다. 콩쿠르 신청자는 21개국 316명이다. 제주 참가자도 7명으로 파악됐다. 결선과 시상식, 입상자 음악회는 14일 문예회관.

개막 공연, 특별 공연, 마에스트로 콘서트 등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일정은 제주국제관악제 공식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의기립관> <511>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오달아, 이제부터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쓴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훈 디서 ‘보릿고개’에 대한 시 이악을 하여보켜

보릿고개

팅 빈 항 보릿고개
청보린 헬썩훈디
해삭이 입만 큰 메마꽃덜
맹맹헝맹 보리앗을 기어드넌다

자왓왓 가운디는 불썰라 염천이엇다
감비역궤로 주들아진 양지 품진 어멍
이 생보리 까먹는 꺾것 입덜!
수정웃이 밋줄거리를 줄라불엇다

풀굴개비 눈으로
끄막끄막 베려보단 아이는
밭담에 걸쳐진 메마꽃송이 톨아들고
나팔을 불엇다
허천더레 베고픈 나팔을 불엇다

만흔 오뉴월이 지나가고
보릿고개 향은 이제 뿔룩훈디
밭 구석 폭낭 아래
꺾것덜 또시 피어난 입 벌린다
그뎨 출발 청보리가 먹고정 헛주!
밋줄거리 돈돈이 심고 중중거린다

풀말쭉덜이
어멍은 느시 못 온텐하는 소식을
폭낭 알레레 차르르르 돌글러 보넌다
보릿고개 건넌 아이가
피고 지는 메마꽃 보멍 착각 늙어간다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충>
<계속>

제주어 풀이

*해삭이: 해벌죽	*메마꽃덜: 메꽃들	*보리앗: 보리밭
*기어드넌다: 기어다녔다	*자왓왓: 자갈밭	*불썰라: 벌레
*감비역궤로: 감부짓가루로	*주들아진: 걱정스런	
*꺾것 입덜!: 귀신 입들!	*수정웃이: 사정없이	
*밋줄거리를: 밋줄기를	*줄라불엇다: 잘라버렸다	
*풀굴개비: 청개구리	*밭담에: 밭 돌담에	*메마꽃송이: 메꽃송이
*톨아들고: 뜯어 들고	*만흔 오뉴월이 지나가고: 수많은 오뉴월이 지나가고	
*꺾것덜 다시: 귀신을 다시	*피어난 입 벌린다: 피어나 입 벌린다	
*먹고정 헛주!: 먹고 싶었지!	*밋줄거리 돈돈이 심고: 밋줄기 단단히 붙들고	
*중중거린다: 수근거린다	*못 온텐하는: 못 온다고 하는	
*메마꽃 보멍: 메꽃을 보며		

문화가 쏘지

▷신제남 개인전 '감성의 해방' = 극사실주의와 초현실주의, 구상과 추상을 오가며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구축해 온 원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 오는 30일까지 콘테로스코리아(Conte Rosso Korea)(서귀포시 예래해안로 550, 지하 1층). 전시장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요일엔 문을 닫는다.

▷제주대 음악학부·미술학과 예술 교차 프로젝트 2=지난 6월 26일 제주대에서 진행된 첫 무대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 학교를 벗어나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미술 작품 전시와 함께 해당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 연주가 동시에 진행된다. 미술 전공 강초희·이광혁·이샘·정세아·최서진·최아름, 음악 전공 김예림·김해미·박예진·박인서·원유민 학생

이 참여한다. 공연의 피날레는 프로젝트 기획한 미술학과 김강훈 교수와 음악학부 강정은 교수가 맡는다. 당일 전시와 연주 프로그램은 영상으로도 기록해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7일 오후 6시30분 델문도로스터스(제주시 연삼로 316).

▷갤러리 세이브 기획전 '목성의 네 번째'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이 각자의 작업을 알리고 교류하는 전시. 참여 작가는 김유선·박성찬·배승현·송현정·이예지·이한길·장승원. 갤러리 세이브를 운영하는 장승원 작가는 “이를 시작으로 삼아 향후 제주 청년 작가들의 작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오는 9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돌담갤러리.

“수도권 공연 ‘고래의 아이’ 가능성 봤다”

2회 공연 객석 점유율 79%
“스테디셀러 레퍼토리 기대”

제주4·3의 이야기를 품은 창작 뮤지컬 ‘고래의 아이’가 서울 공연을 마쳤다. 제작을 맡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이 작품을 “제주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레퍼토리”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4일 도 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 기획해 ‘고래의 아이’를 유료로 공연했다. 타 지역에서 진행한 첫 ‘고래의 아이’ 공연으로 객석 점유율 78.8%를 기록했다.

서울 공연은 2년 연속(2025~2026

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무대 세트와 영상 디자인을 보완해 연출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제주 지역 배우를 포함한 더블 캐스팅으로 출연진들이 한층 섬세해진 연기력을 보여줬다.

도 문화진흥원 측은 현장을 찾은 공연 전문가와 객석의 호평을 전하며 제주의 문화 자산과 역사가 수도권 관객들에서도 충분한 대중성과 시장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전국 주요 문예회관 유통망 확대와 해외 진출 모색 등 제주형 창작 뮤지컬의 외연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희진 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작품을 지속적으로 가다듬어 전국 어디서나 사랑받는 대표 뮤지컬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주차장형·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펜션·카페·식당·유치원
카센터·게스트하우스·교회·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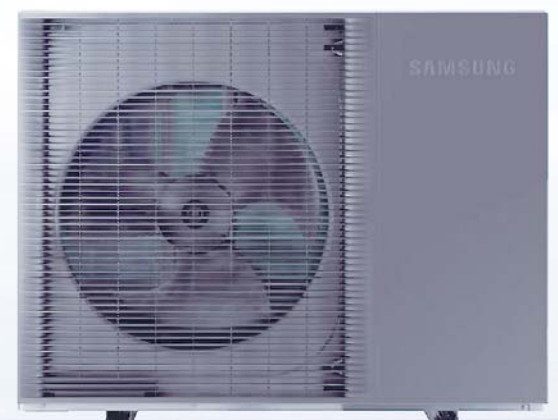
우리에너지코리아(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

삼성전자 제품

SAMSUNG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